

‘유치원·태권도장’… 일상공간, 하루만 ‘투표소’로

광주·전남 1163곳서 대선 본투표

유권자 편의고려, 일부 민간지정 체육관 위에 기표소… ‘이색 풍경’ ‘거주지 가까워 편리’ 주민 호응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실시되는 3일, 광주·전남 지역 곳곳의 일상 공간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담은 이색적인 투표소로 탈바꿈한다.

2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광역시 357곳, 전라남도 806곳 등 총 1163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 중 상당수는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학교 등 공공시설이지만, 유권자들의 접근성과 편의 등을 고려해 유치원, 태권도장, 게이트볼장 같은 주민에게 친숙한 공간도 투표소로 지정됐다.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찾은 광주 남구 진월동 제5투표소 백두태권도장에 이 곳에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트로피들이 출입구 한켠에 진열돼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체육용품들이 정돈돼 있어 여느 태권도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사무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도장 한가운데에 투표함이 놓이며 기표소가 나란히 설치되자 태권도장은 단숨에 유권자들이 모이는 투표소로 바뀌었다.



2일 오후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제5투표소인 백두태권도장에 기표소와 투표함 등이 설치돼 있다.

건물 입구에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 표지가 부착됐고, 아동 약자들을 위한 간이 경사로도 설치됐다.

주민 이미숙(62)씨는 “이사 온 뒤로 18년째 이곳에서만 투표를 해와서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됐다”면서 “거주지와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어 편리하고 주민 반응도 좋다. 개시에

맞춰 투표하러 나갈 계획”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같은 날 찾은 북구 신용동 제5투표소인 한 유치원은 원생들의 웃음소리와 수다로 활기가 넘쳤다. 미끄럼틀과 유아용 자전거 등 놀이기구 사이로는 배치를 앞둔 투표함과 기표소 등 각종 선거용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당 유치원은 인근에 투표소로 활용할

적절한 시설이 부족해 벌써 5번째 선거를 치르게 됐다. 원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투표소 설치에 모두가 하원한 저녁 시간대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 김모(34)씨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에 투표소가 생기는 모습이 선거마다 이색적으로 느껴진다”며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동구 학동 제1투표소는 동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탁구장을 활용하고, 학운동 제3투표소는 아파트 단지 내 신체교정원을 지정하는 등 광주 지역의 다양한 일상 공간이 선거 현장으로 변모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게이트볼장이 다수 투표소로 지정된 점이 눈에 띈다. 순천 등 도시뿐만 아니라 보성 등 여러 농어촌 지역에서도 고령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게이트볼장이 투표소로 활용돼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고 있다.

투표소로 활용되는 민간시설의 경우 건물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소정의 사례비나 임차료가 지급된다. 설치 시기는 업소나 시설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모든 준비는 투표 전날 오후까지 마무리된다.

통상 투표소는 읍·면·동사무소나 관공서 등의 1층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절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경우, 유권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민간 시설이나 인접 장소 등이 투표소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민간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하고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기존에 사용된 투표소를 계속 지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투표 참여로 권리 실천을”… 빗속 라이딩 나선 시민들

광주시청-민주광장 자전거 행진 ‘투표독려시민모임’ 30여명 참여 “건강한 미래 위한 한 표 행사를”

“투표 참여를 통해 주권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실천합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선거일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시청 본관 앞에는 우비를 입은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자전거에 ‘투표 참여’ 깃발을 단 이들은 “소중한 한표, 꼭 투표하자”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굵은 빗줄기를 뚫고 폐달을 힘차게 밟았다.

이날 행진은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투표독려시민모임’이 주최했다. 30여명의 참가자들은 광주시청을 출발해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을 잇는 구간을 따라 자전거 행진을 벌였다.

행진은 웹자보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됐으며, 자전거가 없는 참가자들을 위해서 공유센터를 통해 대여도 이뤄졌다. 자전거 동호인들도 다수 동참



2일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 본관 앞을 출발해 동구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을 잇는 구간에서 ‘투표독려시민모임’의 자전거 행진이 펼쳐졌다.

해 안전한 라이딩을 도왔다.

가슴과 등에 기표 도장이 찍힌 피켓을 두른 채 빗속을 가르는 이들의 모습은 시민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행진단은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환한 미소와 손짓으로 인사하며,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해 광주의 상징인 시청에서 출발,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을 잇

는 행진에는 ‘투표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정성훈 투표독려시민모임대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자고 독려하고자 행진을 계획하게 됐다”며 “오월광주에서 피어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바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건강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시, 천노엘 신부 헌신에 깊은 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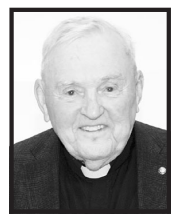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 ‘그룹홈’ 도입 1991년 광주명예시민 수여

광주광역시는 발달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 천노엘 신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깊은 애도를 전했다.

지난 1일 아일랜드에서 향년 93세로 선종한 천노엘(본명 오닐 패트릭 노엘) 신부는 1957년 아일랜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첫발을 디딘 뒤, 광주에서 오랜 세월 뜻깊은 봉사·복지활동을 펼쳤다.

천 신부는 1981년 우리나라 최초로 ‘그룹홈’ 개념을 도입해 광주에 엠마우스집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후 ‘엠마우스복지관’을 건립해 자립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복지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의 노력은 전국적으로 그룹홈 운영 모델이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지난 1991년에는 광주와 발달장애



인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또 2016년에는 법무부로부터 장애인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

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또 천 신부는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를 설립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천노엘 신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친구(장애인)들을 사랑해 달라”는 발달장애인을 향한 깊은 애정을 남기며 광주공동체에 큰 울림을 남겼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천노엘 신부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광주 공동체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깊이 인식하며, 신부님의 뜻을 이어받아 발달장애인 정책·지원을 더욱 신경 쓰겠다”며 “신부님이 뿌리 내린 사랑의 씨앗이 광주공동체에서 더욱 활짝 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삼성페이 결제 안 돼”… 출근길 이용자 불편 호소

3시간여 장애… 10시22분께 복구

출근 시간대 발생한 삼성페이 결제 장애로 인해 광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2일 오전 7시께부터 삼성페이 결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광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편의점 매장에서는 고객과 점주 모두 큰 혼란을 겪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삼성페이 결제 오류로 불편을 겪었다는 글들이 쇄도했다.

이용자들은 “삼성페이 결제가 안 된다”, “아침부터 삼성페이가 안 돼 편의점에서 결제를 못했다”, “삼성페이 쓰는 사람도 실물 카드 꼭 챙겨라”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일부 편의점 본사는 지점에 “휴대폰의 삼성페이 인증이 불가해 결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결제 수단을 안내해 달라”는 긴급 공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결제 장애는 오전 10시22분께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약 3시간20여분만에 정상 작동이 재개된 셈이다.

특히 편의점 점주들은 결제 지연으로 실질적인 영업 불편을 겪어야 했다.

광주지역의 한 편의점 점주는 “오전 시간대 고객이 몰렸는데 결제가 되지 않아 편의점 운영 중 처음으로 ‘외상 결제’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번 삼성페이 결제 오류는 휴대전화 사용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유철 기자

광주 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 훼손한 60대 ‘입건’

광주광역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2일 서부경찰은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6시20분께 서구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기표를 잘못해 투표용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달아난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의해 하루만인 지난달 30일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